

2020년, 후쿠시마에서 코로나 재해를 생각한다

마쓰타니 모토카즈

지난해 봄, 필자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후 한일의 미래를 위한 당사자의 관찰과 시사〉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기회를 가졌다. 강연에서는 원전 사고가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지인의 삶에 갖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시점을 통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강연 내용은 가필·수정을 거쳐 일본연구소에서 『리딩재팬』 시리즈 제29권으로 간행됐다.¹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라는

마쓰타니 모토카즈(松谷基和) 일본 도호쿠가쿠인대학(東北学院大学) 교양학부 언어문화학과 조교수.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을 졸업하고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에서 석사 학위를, 하버드대학 동아시아연구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조수(2009~2012), 도호쿠대학 경제학부 조교수(2013~2015)를 거쳐, 2016년 4월 현직에 부임했다.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근현대 역사와 종교 등을 연구해 왔으며, 최근 연구 단행본 『民族を超える教会: 植民地朝鮮におけるキリスト教とナショナリズム』(明石書店, 2020)을 출간했다.

<https://doi.org/10.29154/ILBI.2020.23.208>

새로운 ‘재해’를 경험 중이다. 어쩌면 자연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유행을 ‘재해’로 불러야만 하는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 개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흔드는 충격을 안겼다면, 아무래도 단순히 의학적인 ‘역병’이 아니라 사회적 ‘재해’로 불러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 재해는 바이러스가 야기한 ‘자연 재해’지만, 대응하는 인간 사회의 판단이나 행동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고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인적 재해’의 측면도 함께 지닌 ‘복합 재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 사고라는 ‘복합 재해’를 가까이서 관찰해 온 필자로서는 원전 재해와, 새로운 ‘복합 재해’인 코로나 재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교하며 생각해 볼 공통점이 있는 듯 여겨졌다.

이 글에서는 『리딩재팬』에 수록했던 지난 글의 논의를 이어 가면서, 원전 사고를 경험했던 후쿠시마 주민의 시점에서 살펴본 ‘코로나 재해’에 관해 일상 속 에피소드를 곁들여 서술해 보고 싶다. 지난 글을 읽은 분께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는 속편이 되겠지만, 지난 글을 읽지 않은 분이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 다만, 독자들이 이 글로부터 자극을 받아 이전의 글을 찾아 읽어 주신다면 기쁘겠다.

1. 사회적 문제로서의 코로나

코로나 재해를 관찰하며 처음 깨달았던 원전 재해와의 공통점은 주민에게 초래하는 피해가 의학이나 건강 측면보다도 사회심리적인 쪽이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바이러스와 방사선이 완전히 다른 성질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모두 인간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적’이며, 언제 어떤 형태로 자신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예측 불가능하므로 사람들 사이에 매우 큰 불안감을 안긴다. 또한 막연한 불안이나

1 마쓰타니 모토카즈, 『Reading Japan 29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9.

공포가 사회로 확산되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 혹은 차별을 낳아 인간 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도 두 재해는 다를 바 없다.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이 바이러스나 병원균처럼 감염된다고 오해했던 사람들이나, 감염은 안 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원전 피해지역에서 온 피난민을 거부하고 차별하는 사건이 횡행했다. 나아가 이러한 차별적 시선은 피난민이 정부나 도쿄전력으로부터 여러 공적 지원과 배상금을 받는 상황으로도 향했다. 원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용인하는 풍조는 어른에서 아이들로까지 전파됐다. 수도권 학교로 전학 온 후쿠시마 출신 학생들은 동급생에게 ‘방사능 군’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다. 더구나 피난민이 받았을 배상금을 노리고 다량의 금품을 뜯어 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였지만, 전국 각지에서 차별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후 문부과학성의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

원전 피해자를 향한 이 같은 사회적 차별을 가까이서 느껴 왔던 필자로서는, 이번 코로나 재해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비슷한 차별이 횡행했던 상황이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다만 놀라웠던 것은 차별의 확산이나 정도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는 점이다. 감염자를 중상·비방하고 개인정보를 폭로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심지어 감염자가 아닌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종사자나 그 가족에게까지 이웃 간 교제를 거절하거나, 자녀의 학교·유치원 통학을 거부하는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부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을 통해 전국의 학교와 보육원에 차별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본의사회가 의료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야만 했던 사실에서 차별의

2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 「原子力発電所事故等により福島県から避難している児童生徒に対するいじめの状況等の確認に係るフォローアップ結果について」,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1405633.htm (최종 검색일: 2017. 4. 11.)

심각성을 알 수 있다.³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사회가 의료종사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을 이른바 ‘풍평(風評) 피해’라고 부르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잘 알려져 있듯 이 말은 후쿠시마 원전 재해를 계기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풍평 피해’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아무런 과학적·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장기간에 걸쳐 기피와 차별이 지속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심리적·경제적 피해를 가리킨다. 실제로 원전 재해에서는 ‘후쿠시마’(フクシマ)라고 이름 붙으면 전부 ‘방사능 오염’과 연결되어 기피되었던 것처럼, 이번 재해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는 점에서 확실히 ‘풍평 피해’로 불리기에 걸맞았다.

반복할 필요도 없겠지만 ‘풍평 피해’는 사회적인 무지와 편견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원전 사고에 이어 코로나 재해 속에서도 ‘풍평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일본 사회에 아직 과학적 교육이나 인권 교육이 충분치 않았음을 새삼스레 보여 준다. 객관적인 지표에 비춰 보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으뜸가는 기술 대국이자 의료 선진국일지 모르지만, 위기 때는 과학적 합리보다 직감적인 감정이 우선하여 ‘풍평 피해’가 반복되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취약한 기반 위에 성립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풍평 피해’를 낳은 사회의 문제성은 원전 사고 이래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소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원전 피해에서 얻었던 지식과 교훈이 사회적으로 전혀 스며들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健康教育,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者等に対する偏見や差別の防止等の徹底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200421-mxt_kouhou01-000004520_5.pdf(최종 검색일: 2020. 4. 16.); 厚生労働省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推進本部, 「医療従事者等の子どもに対する保育所等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への対応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000622822.pdf>(최종 검색일: 2020. 4. 17.); 日本医師会ウェブサイト, https://www.med.or.jp/people/info/people_info/009162.html(최종 검색일: 2020. 4. 17.)

2. 후쿠시마에서도 일어난 코로나 차별

실제로 원전 재해로부터 얻은 교훈을 코로나 재해에서 제대로 되살리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풍평 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후쿠시마현에서도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풍평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2020년 3월 중순 무렵, 후쿠시마현에서는 중부 지역의 고리야마(郡山)여자대학에 근무하는 여성 교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다녀왔던 이집트 여행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직후 대학으로 “그 교수의 주소를 알려 달라.” “죽었으면 좋겠다.” 같은 비난 메일과 전화가 150건 넘게 쏟아졌다. 또한 이 학교 대학생보다 오히려 교복으로 소속을 판별할 수 있는 부속고등학교 학생이 거리에서 행인에게 “코로나! 코로나!”라고 손가락질 당하거나,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트린다고 비방 당하는 사건이 잇따랐다.⁴ 후쿠시마 사람들에 의한 후쿠시마 사람을 향한 서글픈 차별이다.

필자 역시 후쿠시마에 살면서 지역 주민이 코로나 감염자에 대해 뿌리깊은 차별 의식을 드러내는 사실을 직접 통감할 기회가 있었다. 이 뉴스가 보도된 직후 가까운 온천 마을에 있는 ‘공동욕장’에 간 적이 있다. ‘공동욕장’은 일반적인 센토(銭湯, 대중목욕탕)와는 달리 마을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간소한 입욕 시설(샤워기도 없고 욕조만 있다)이다. 요금이 겨우 200엔밖에 하지 않아 지역 중·노년층이 사교 생활을 겸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역시 단골이다. 그날 욕조에 앉아 있으니 뒤따라 들어온 동네 할아버지들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고리야마의 할매는 용서가 안 돼.”

“그렇고 말고. 이미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그 사람도 [주위의 가까운 시선 때문에] 살지 못할 거야.”

4 『朝日新聞』, 2020. 4. 30. 디지털판은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460142.html>

“이럴 때 외국으로 나돌아 다니다니 이해가 안 되는구만. 돈깨나 있는가 보지?”

“그 사람 집이 어딘지 알면 볼 지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게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더는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을 테니.”

미리 말해 두지만 이 두 남성은 무척 순박한 동네 할아버지이며, 딱히 눈에 띄 만한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이다. 후쿠시마 사투리를 들으면 분명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9년 전 원전 사고를 경험했을 테고 아마 후쿠시마 주민으로서 어떤 식이라도 ‘풍평 피해’를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에서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자제하려는 자세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뿐더러, 폭력조차 용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강한 적의는 아마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를 후쿠시마로 옮겨온 감염자를 향한 분노와, 전염병이 후쿠시마로도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에 의한 것이라. 하지만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희생자인 감염자를 공격하고 배척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적을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감염자를 적으로 오인하여 공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이러스라는 진짜 적에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이러한 점은 그들이 후쿠시마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두려움을 화제로 삼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감염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공간, 다름 아닌 불특정다수가 밀폐된 장소에서 밀착해서(그것도 알몸으로!) 대화하는 공동욕장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즐기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로 드러난다. 그들에게는 감염자가 확인된 고리야마시와 공동욕장이 있는 후쿠시마시가 40km나 떨어진 다른 도시이므로 안전하다는 의식이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그들이 후쿠시마의 감염자를 공격한 이유는 ‘같은’ 후쿠시마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감염자가 같은 후쿠시마현 사람이기에 공포를 느끼지만, 공격할 때는 ‘다른’ 시에 사는 주민이므로 안심한다. 이러한 마음을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감정이라고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와 비슷한 심리 상태를 가졌기에 바로 ‘풍평 피해’가 생겨난다.

원전 사고와 방사능 오염에서 기인한 여러 ‘풍평 피해’에 시달려 온 후쿠시마 주민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재해 앞에서 감염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에 가담하고, ‘풍평 피해’를 확산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하지만 더욱 필자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원전 재해의 경험을 거울 삼아 코로나 정국에서는 ‘풍평 피해’를 경계해야 할 목소리가 후쿠시마 지사를 비롯한 지역 리더나 미디어로부터 거의 들려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자가 아는 한, 방사능 차별과 코로나 차별의 구조가 지닌 유사성을 지적하고 현민을 향해 차별 자제를 호소한 이는 후쿠시마대학의 마에카와 나오야(前川直哉) 특임준교수 정도였고, 지역신문 『후쿠시마민유』(福島民友)가 사설에서 그의 의견을 간단히 다루었을 따름이다.⁵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고 나서 원전 사고라는 ‘경험’으로부터 얻은 열매는 그다지 튼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코로나 재해를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차별이 반복되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을 기반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의무로 부과하는 교육제도나 뒷받침해 주는 사회적·정치적 의사 표현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 재해로부터 9년이 흘러 당시의 기억이 점점 풍화되어 가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방치한다면, 후쿠시마 주민도 앞으로 일본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기가 오면 쉽사리 타자를 차별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코로나 재해를 원전 재해의 기억과 교훈을 쉽게 잊는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울리는 경종으로 받아들인다.

5 『福島民友』, 2020. 3. 27., 21쪽, 『福島民報』, 2020. 4. 5., 12쪽.

3. 올림픽 연기와 성화 봉송 릴레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0년 3월 24일,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 연기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원전 사고로 힘겨워하는 후쿠시마 주민을 직시하지 않고, “통제하”(under control)에 있는 후쿠시마의 상황이 “도쿄에는 어떤 악영향도 … 미치지 않습니다.”라며 후쿠시마를 잘라 내는 형식으로 도쿄의 안전함을 세계에 선전하면서 유치했던 대회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필자에게 도쿄 올림픽을 환영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자기에게 불안한 요소나 문제는 모른 척 눈감아 버리고 무관하다고 분리해 버리면 안전과 안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의식이 사회적 차별을 낳고 ‘풍평 피해’를 만연케 한다. 실로 아베 총리의 올림픽 유치 연설은 그러한 의식이 응축된 ‘본보기’라고 부르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노골적인 허위와 차별을 바탕으로 삼고 유치에 성공했던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은 환영할 일이지 안타까울 이유는 없다.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면 야구와 소프트볼의 몇 시합이 후쿠시마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람들 중에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거나, 경제 효과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 사람도 있었다. 그 점에서 개최 연기를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게다가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성화 봉송 출발지가 후쿠시마현으로 결정되자 현내 각지를 도는 성화 주자로 뽑힌 지역 주민이나, 응원 준비를 하던 관계자도 많았기에 올림픽 연기와 함께 성화 릴레이 중단마저 발표되자 낙담한 이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후쿠시마에서 펼쳐질 성화 봉송에 관해서도 필자는 예전부터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었다. 후쿠시마가 성화 릴레이의 출발 지점으로 뽑힌 이유는 원전 사고가 잘 수습되었다는 점을 국내외에 어필하고 싶던 정부의 의도와, ‘풍평 피해’를 불식하고 싶었던 후쿠시마현 측의 기대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스 선정도 지역 주민의 의향이나 기대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정부나 현, 올림픽 위원회 등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후쿠시마현의 성화 봉송 코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나 현이 염두에 둔 ‘부흥’의

상징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고 싶은 목적을 명확히 간파할 수 있다. 출발 지점으로 설정된 하마도리(浜通り) 거리의 원전 피해지역은 특히 그러했다.

하마도리에서 성화 릴레이가 결정된 장소는 9년 전 마을 전체가 피난 대상이 됐던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오쿠마마치(大熊町), 후타바마치(双葉町), 제2원전이 위치한 도미오카마치(富岡町), 나라하마치(楡葉町), 그리고 원전은 없지만 방사능 오염이 심각했던 나미에마치(浪江町), 이타테무라(飯館村) 등 주요 원전 피해 자치체(自治体)가 전부 망라되어 있다.⁶ 하지만 성화 주자가 달리는 곳이 사고 이후 출입이 제한되고 주민이 떠나 황폐해진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성화 주자의 모습이 방영되도록 기대되는 곳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제염을 시행하여 이른바 ‘부흥 거점’으로서 주민의 귀환을 권장해 온 특정 지역이나 시설이었다.

예컨대 성화 봉송의 출발 지점이 될 예정이었던 나라하마치 J 빌리지는 대규모 축구 훈련 시설이다. 이곳은 원전 사고 직후부터 2018년 중반까지 제1원전에서 근무하는 복구 작업원 다수가 숙식하는 사고 대응 거점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대책 거점이 다른 장소로 이전되면서 2019년 중반부터 다시 축구 시설로서 운영을 재개했다. 그리고 일본 국가 대표 팀의 합숙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 개최되어 원전 사고로부터 벗어나 부흥을 상징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J 빌리지가 위치한 나라하마치의 주민 귀환율(현재 거주 인구/사고 전 거주 인구)은 2018년 5월 시점에서 약 50%를 넘었을 뿐이다. 나라하마치는 원래 방사능 오염이 비교적 적었고, 현재 방사선량도 사고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귀환하지 않는 주민이 절반이나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나라하마치에 설정된 성화 봉송 코스는 먼저 J 빌리지 부지 내의 0.7km 구간과 거기서 5km나 떨어진 마을 중심지를 달리는 1km 구간뿐이다. 아마 텔레비전 화면으로는 근사하게 정비된 J 빌리지와 마을 중심지만 보이고 한

6 『福島民友』 디지털판, <https://www.minyu-net.com/sports/running/seika-root.php> (최종 검색일: 2020. 6. 30.)

산한 마을의 모습이나 황폐해진 논밭 따위는 방영되지 않을 것이다.

J 빌리지 남쪽에 자리한 히로노마치(広野町)에서 성화가 달리는 구간은 역 앞에서 출발하여 후타바미라이가쿠엔(ふたば未来学園)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약 1.5km이다. 후타바미라이가쿠엔은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부흥’의 상징으로 삼아 지원하며 신설된 공립 중고 일관학교다.⁷ 천황(天皇)을 비롯하여 정부 요인과 유명인이 다수 방문했고, 피해지역의 장래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후원해 온 그야말로 ‘부흥’의 상징인 곳이다.

제1원전이 있던 오쿠마마치는 대부분 여전히 ‘거주제한구역’이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정부가 ‘특정부흥재생거점’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제염 작업을 실행한 후, 얼마 전 새로운 관공서와 주택가가 정비된 ‘오가와라(大川原) 지구’를 달리는 코스가 선정되었다. 이 특별 지구는 2019년부터 거주 제한이 해제되어 현재 약 200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전 인구 약 1만 1,000명과 비교하면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주변은 황폐한 논밭이 펼쳐져 제염토를 쌓아 올린 가설 저장지도 눈에 띈다. 또한 오쿠마마치 동쪽에 위치한 원전 주변의 광대한 지역은 중간 저장 시설 건설 예정지라서 여기에서 살았던 주민은 이미 땅과 건물을 매각하여 반영구적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이다. 성화 주자가 오가와라 지구를 달려도 당연히 이러한 주변 상황은 텔레비전 앞에 앉은 시청자에게는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원전 북쪽에 위치한 나미에마치에서도 오염이 심각했던 서쪽 산간은 코스에서 제외됐다. 또한 지진·쓰나미·방사능이라는 삼중 재해가 덮친 연안 지역의 피해를 상징하는 진재잔존건축물(震災遺構)인 우케도초등학교(請戸小学校) 건물이나 희생자 위령비가 건립된 공원도 코스에서 빠졌다. 대신 성화 주자가 달리는 구간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 부흥의 상징으로서

7 공립 중고 일관학교는 중학교에 입학만 하면 무시험으로 그대로 고등학교에 진급할 수 있는 특별한 학교를 가리킨다. 중학생이 입시 걱정 안 하고 자율적인 커리큘럼을 설정할 수 있다.

설치된 후쿠시마 로봇테스트필드와 수소에너지 연구소 사이 0.6km로 정해졌다. 어떤 시설도 원전 사고 이전 주민의 삶과는 관계가 없으며, 원전 피해의 기억을 전혀 상기시키지 않는 ‘무색투명’한 산업시설만을 보여 주는 경로다. 이러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므로 이 정도로 줄인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도쿄 올림픽 선전을 위한 재료로밖에 생각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니기에 정책적 의도로 가득 찬 코스 선정이 그리 놀랍지는 않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피해 지역의 현재 상황 일부만을 형편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하여 대외적으로 선전하려는 정부와 현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지역 주민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역 매체를 살펴봐도 성화 주자에 선발된 개인의 기쁨을 전달할 뿐, 축하 분위기에 고분고분 편승하고 있는 듯 보인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원전 피해의 심각성을 알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이를 전달하면 ‘풍평 피해’가 생겨나리라는 공포,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고뇌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성화 봉송 코스와 관련해서도 피해 이미지보다 ‘부흥’ 이미지를 골라서 보여 주는 것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릴지라도 정부나 현이 펼치는 이렇게나 노골적인 ‘연출’을 두고 지역 주민의 비판 의식이 너무 약한 듯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부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온 성화 봉송 코스에 정말 만족하고 있을까.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기회도, 논의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코스를 달리면서 진정 흡족해할 수 있는 것일까. 원전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받아들여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지역이 윤택해진다고 믿어 온 꿈이 산산조각 난 사건이 2011년 원전 사고가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적 제안을 받은 올림픽과 관련 프로젝트·이벤트가 주는 일시적 이권과 기쁨을 순순히 받아들여 거기에 발맞춰 춤추는(달리는?) 것을 ‘부흥’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필자의 눈에 비친 성화 봉송 코스의 풍경은 ‘부흥’이 아니라, 언젠가 걸어왔던 길의 ‘복원’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4. 후쿠시마시의 제염, 그 후

마지막으로 지난 글에서 소개했던 후쿠시마시와 우리 집의 제염 작업에 대한 후일담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 짓고 싶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유행이 일본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0년 1월 하순, 필자가 사는 후쿠시마시 교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교정에 묻어 둔 대량의 제염 폐기물을 다시 파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9년 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시내의 초·중학교에서 일제히 제염이 시행되었지만 폐기물을 운반할 장소가 없어서 줄곧 교정에 묻어 둔 채였다. 중간저장시설 일부가 겨우 완성되었기에 지금이라도 파내서 이송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학교 교정에 매장되어 있던 폐기물은 상당한 양이라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는 몇 주나 걸렸다. 그 사이 초등학교 교정은 높은 펜스로 덮여 공사 현장으로 변했다. 당연히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놀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교정을 파헤치고 폐기물을 운반해 갈 중장비와 트럭의 소음에 시달리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그림 1> 참조).

이렇게 원전 사고로부터 9년이 지났어도 제염 폐기물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을 빼앗기고 교육 환경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 후쿠시마의 현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미디어는 이 같은 현실을 널리 보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관심은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유행과 여름으로 다가온 올림픽으로 향했다.



<그림 1>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정. 2020년 1월 28일, 필자 촬영

학교의 폐기물 이송 작업이 끝나고 후쿠시마 시청으로부터 우리 집 마당에 매장되어 있는 폐기물 이송 작업도 곧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후쿠시마 교외에 있는 우리 집은 원전 사고로부터 4년 후인 2015년 5월에 제염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폐기물은 ‘현장 보관’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집 마당에 그대로 묻히게 되었지만 드디어 중간저장시설로 이송할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폐기물의 이송을 바라지 않으므로 그대로 매몰해 둘 예정이라고 시청 담당자에게 전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의 경우 5년 전에 제염을 했던 시점에도 부지 내 방사선량은 충분히 낮은 수치였고, 묻힌 폐기물도 행정적 정의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실제 방사선량은 미량이라서 현재로서는 거의 무해한 보통 흙과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이송할 필요도 없으며 자기 집 쓰레기를 다른 집(원전 피해자의 희생으로 세워진 중간저장시설)에 억지로 떠맡기는 일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송을 거부하고 뜯을 자그마한 ‘최종처분장’으로 삼을 작정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담당자는 내 의도를 이해하고 의사를 존중해 주었지만 예상도 못했던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주었다. 제염 폐기물을 그대로 보관해 둘 경우,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지 내에 방사성 폐기물이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류에도 명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우리 집의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는 이를 특기사항으로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당장 집을 매매할 예정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부부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받은 아이들이 매각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부동산 계약서에 방사성 폐기물이 매장되어 있는 사실이 특기사항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평가액이 떨어지거나, 상대방도 틀림없이 주저할 것이다. 물론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지만, 구매자가 서류상의 ‘방사성 폐기물’에 공포감을 느껴 구입을 철회한다면 일종의 ‘풍평 피해’를 불식하기란 어렵다. 게다가 사정을 설명하려 해도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사후까지 포함한 장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듣고 먼 장래를 고려해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이송해 두는 편이 현명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렇게 필자는 원전 사고와 방사선에 대한 ‘풍평 피해’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서글픈 미래를 예측하면서, 장래에 있을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제염 폐기물 이송에 동의했다. 불필요하게 다른 특정 지역에 부정적인 유산을 떠맡기고 싶지 않았던 나에게 있어서는 방향 전환이자 타협이기도 했으며 본심과는 무척이나 멀어진 결단이었다.

이렇게 하여 2020년 4월 2일, 우리 집의 폐기물 이송 작업이 시작됐다. 오전에 중장비를 실은 트럭이 도착하고 트럭에서 내린 중장비는 그동안 정성껏 가꾼 잔디를 아무렇게나 뜯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막내딸이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다. 곧바로 중장비는 5년 전 묻었던 검은 비닐 포대 두 개를 땅 위로 끌어 올렸다. 비닐 포대를 쌓은 트럭은 쏜살같이 사라졌고 중장비는 파낸 구멍을 새로운 토사로 메워 넣고는 작업을 마쳤다. 실제로 걸린 시간은 두 시간 남짓이라 꼬박 하루가 걸렸던 제염과 비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작업이었다(〈그림 2〉 참조).

이송 작업을 마치고 빈터가 된 마당을 바라보니 웬지 모를 허무감이 점점 밀려왔다. 우리 집 쓰레기를 남에게 억지로 떠넘긴 것 같은 쓸쓸한 뒷맛까지도. 적어도 폐기물이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다. 다만 이제 두 번 다시 ‘제염’이라는 작업을 가까이서 느끼며 살지 않아도 되려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했을지도 모르겠다. 창 밖으로 이송 작업을 바라봤던 딸은 태어났을 때부터 제염 작업원을 익숙하게 여겨서 일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헬멧만 쓰고 있으면 “제염 아저씨”라고 부르며 자랐다. 그런 생각을 하니 원전 사고 이후 9년이 흘러 이루어진 이번 이송 작업은 드디어 우리 가족도 ‘제염’과 결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 주는 기념행사였는지도 모른다.



〈그림 2〉

- ❶ 도착한 트럭과 중장비
- ❷ 마당의 잔디를 파헤치는 모습
- ❸ 창문으로 걱정스레 지켜보는 막내딸
- ❹ 폐기물이 담긴 비닐 포대 두 개를 파내는 모습
- ❺ 토사로 메꾸고 완료된 작업

5. 마치며

이송 작업이 진행됐던 4월 2일은 일본 전국에 코로나 감염이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하여 후쿠시마현에서도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었던 시기와의 겹친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인 긴장이나 혼란과는 관계 없이, 우리 집 주변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이 제염 폐기물의 이송 작업이 이루어졌다. 밖을 내다보면 피꼬리가 울고 벚꽃이 피었으며, 과수원에는 복숭아꽃도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상 풍경을 바라보면서 문득 제염 작업이 계속되는 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제염은 원전 사고에서 비롯된 특수

한 작업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람들에게는 일상적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코로나 재해로 사회 전체가 급속히 위축되고 타인을 경계하며 차별하는 풍조가 확산되어 가는 비정상적인 사태보다는, 제염 작업마저 포함한 일상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쪽이 안심이 되는 듯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평소와 같은 차분한 삶을 되찾게끔 냉정함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제염 작업을 일상을 상징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전에 정상이 아니었던 것이 도리어 그립고 바라는 일이 되어 버린 듯 착각하게 만들 만큼, 코로나 재해는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경계심이나 반응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전염병의 무서움을 “모두가 병에 걸렸을 리는 없지만 너나없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황”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이야말로 원전 재해와 코로나 재해라는 이상 사태를 경험했던 내가 실감하는 상황이다. 어찌면 나 또한 이러한 병마에 휩쓸릴지 모른다고 스스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오늘도 후쿠시마에서 평소처럼 삶을 이어 나가고자 분투하고 있다.

* 이 글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최재혁(도쿄예술대학 박사/일본미술사 전공)이 번역했다.